

사순절 셋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IN LENT

주후 2024년 3월 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25 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21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6 번 사순절 (3)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Psalm) 19:7-14, 요(John) 2:13-22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나를 구한 예수님 이야기”	찬양대
설 교 Sermon	“성전된 자기 육체를가려려 말씀하신 것이라” (He Was Speaking of The Temple of His Body)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는 완전합니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33 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통일 49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부인하지도 못했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렸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좇아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오니,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6:24,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개역개정 요22:1-22)

“But He was speaking of the temple of His body. So when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which Jesus had spoken.” (NASV John 2:21-2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3 (주일)	3/4 (월)	3/5 (화)	3/6 (수)	3/7 (목)	3/8 (금)	3/9 (토)
출	출15	출16	출17	출18	출19	출20	출21
눅	눅18	눅19	눅20	눅21	눅22	눅23	눅24
욘	욘33	욘34	욘35	욘36	욘37	욘38	욘39
고후	고후3	고후4	고후5	고후6	고후7	고후8	고후9

수/요/ 찬/양/ 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6 오후7:30)	“앞서 가신 예수님” (요10:1-5) – 한경준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 (3/9 오전6:30)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129:1-8)

지난 주일(2/25) 말씀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창 17:1-7, 롬 4:13-25)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창12:4). 그리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나서,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창17:1),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는 단순히 “걷다” “행동하다”라는 의미이기 보다는, “함께 걷다”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불완전한) 우리를 향해, (어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하나님의 (어떤)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룩한 초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에녹**이 그러했고(창5:24), 또한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창6:9)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람데오**(신전익식)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시고, 그의 아내 사래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새롭게 바꾸어주시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설/교/ 메/모